

자연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는 어린이 집

바우킨트의 용의 동굴

숲이 아이들에게 주는 정서적, 신체적, 교육적 효과는 실로 대단하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치유효과뿐만 아니라 숲을 이루는 작은 돌맹이, 떨어진 나뭇잎, 들꽃 하나조차도 아이들의 오감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훌륭한 놀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어릴 때 나뭇잎 반찬에 모래밥만으로도 소꿉장난이 꽤 즐거웠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점차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자연은 동화책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된 빈곤한 나무로 대체되거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아프리카의 사자만큼 먼 존재가 되어버렸다.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바우킨트(Baukind)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했다. 바우킨트는 건축가 나탈리 지오베크 베퍼레(Nathalie Dziobek-Bepke)와 디자이너 릴리아 클레만트(Lilia Kleemann)이 2011년에 설립한 어린이 공간 전문 건축 디자인 회사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 안에 자연의 존재를 불러들이는 일을 주로 하는 이들은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30여개가 넘는 어린이 공간을 디자인, 시공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과 디자인을 한다는 점에선 일반 건축 디자인 회사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이들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어린이집의 기획단계부터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공간에서 사용할 테이블이나 작은 옷걸이 등을 제작하기도 한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적절한 토지나 건물을 고르기도 하고 시공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직접 국가 펀딩을 신청할 때도 있다. 말 그대로 공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모든 일에 관심을 쏟고 디테일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다. 이들이 진행한 프로젝트 중 완공된 지 3년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2013년 어느 비영리 회사를 위해 디자인한 KITA 드렌첼홀흐(KITA Drachenhöhle) 어린이 집이다. ‘용의 동굴’을 뜻하는 이 프로젝트가 독일을 넘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까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이집 안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이미지와 미니멀한 디자인 요소의 자연스러운 조화 때문이다. 나무, 이끼, 돌 같은 자연의 요소와 직선, 각, 동그라미 등 미니멀한 시각적 요소의 결합으로 복도에 구불구불한 언덕을 만들고, 목욕탕에는 바닷방울을 만들며 놀이방 안에 숲 속의 습지까지 재현해내고 있다. 실내에서도 아이들이 매달리고 기어오르며 자연스럽게 신체를 단련시킬 수 있도록 실제 나무를 다듬어 설치하고 조각난 나무로는 아이들의 소지품과 겹옷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비정형의 의자와 책상, 지지대 등 바우카이드가 직접 디자인한 소품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재미있는 점은 이곳에 사우나 공간이 있다는 것. 어린이집을 시공하기 전 소금 사우나였던 공간의 일부를 남겨두어 아이들의 촉감과 시각을 자극할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소금 벽으로 둘러 싸인 놀이 공간과 사우나 공간을 완성한 것이다. 현재 바우킨트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탁아소를 넘어서 어린이를 위한 신발 가게, 가족 호텔 등 다양한 형식의 공간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는 중이다. 또한 학교를 디자인하고 노인을 위한 공간과 유치원을 결합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www.baukind.de 글: 박고은 통신원, 사진: 마르쿠스 에베너(Marcus Ebener)



1, 2 실제 나무를 다듬어 설치한 자연친화적인 콘셉트의 내부. 작은 나뭇가지는 옷걸이로 활용했다.





1



2

- 1, 2 인테리어 요소로 설치한 나무와 작은 가구들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 3 소금벽을 그대로 살린 놀이 공간.
- 4 자연의 요소와 미니멀한 인테리어의 조화가 돋보이는 화장실.

3



4

Interview

나탈리 지오베크베플레 & 릴리아 클레만트
바우킨트 창업자



©Anne Deppe

“자연에 대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바우킨트의 프로젝트는 아이들과 자연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우리는 2010년 한 유치원을 디자인했는데 공간이 너무 작아 설계하기 어려웠다. 결국엔 철판이 되는 문, 기어오를 수 있는 라디에이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사물을 디자인하면서 이를 해결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에 폭 빠지게 되었고 이후 독일어로 ‘짓다’와 ‘어린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바우킨트(Baukind)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세상에 어린이와 자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가져다준다.

건축 회사이면서 클라이언트와 공간이나 건물을

고르거나 대신 국가 편당을 신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짓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특히 건물을 지을 적절하고 안전한 공간을 고르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전문가 혹은 파트너로서 기획 단계부터 최대한 개입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든다.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이 토지 혹은 건물이 유치원을 운영하기에 안전하고 알맞은지를 묻기도 한다. 게다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부동산 관련 네트워크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적절한 공간을 발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은 프로젝트의 성공뿐만 아니라 바우킨트가 좋은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공간을 통해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윤곽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로 안전한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장난감도 필요 없을 만큼 흥미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적 효과다. 예를 들면 바우킨트의 경우 자연에 대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아이들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기어오르고 매달리는 행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태, 재료, 색도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다. 주로 유기적 형태에 따뜻한 색감 그리고 자연의 재료를 결합하는데 이렇게 단순하면서 명확한 시각적 언어의 결합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짜임새 있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한다.

어린이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진행하는 리서치 방법이 있는가?

현재 7명의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일하고 있는데 모두 아이를 둔 부모다. 따로 프로젝트를 위한 리서치 작업을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정보나 소스를 디자인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아이들도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 아빠와 감정적인 교류를 원하지만 동시에 독립적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혼자 있을 수 있는 동굴, 좁은 길 같은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